

역사적으로 들여다 본 고환율, 그리고 기술개발

Higher Exchange Rate through The history, and Technical Development



글 | 金圭麟

(Kim, Kyu Lin)

토목시공기술사,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주)대한이앤씨 전문위원.
E-mail : kimkyulin@hanail.net

At the moment, Korea has faced a big challenge to an economic crisis due to higher exchange rate against foreign currency.

In order to escape from this type of economic crisis quickly, our professional engineers have to do every endeavor to develop the basic material industries so that we could produce our product with a competitive price.

If we were not victorious in this type of borderless game, we would be hungry again very shortly.

자원보유 면에서 불리한 여건을 가진 한국이 기적에 가까운 고도성장을 단기간에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계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들고, 값싼 에너지와 원료 자원의 안정공급에 값싼 노동력으로 고부가가치를 부여해, 수출확대에 성공한 수출주도형 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전력, 상품을 쉽게 운반하기 위한 도로망, 이를 국외로 수출하기 위한 항만 등이 필요하며 통신설비 또한 갖추어져 있어야만 가능했는데, 한국은 그 외에도 자재기술 인력과 적절한 노하우, 자본, 기초소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일본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해주는 우방국 미국이 있었기에 계속적 성장이 가능했다.

광복 60년 만에 세계 11대 경제대국을 건설하고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배경에는 역대 대통령의 그 나름대로의 통치 철학이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 치적은 안보에 있다. 베트남만 해도 평화조약체결 2년 만에 공산화가 되었음을 생각하면 한미방위조약이 없었다면 박정희의 경제기적도 없었을 것이다. 언제 공산화될지 모르는 우리나라에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부에서도 국방비 부담이 너무 커 다른데 투자는 엄두도 못 낼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평가 받을만하다. 그 대신 분단을 고착화하고 친일파를 청산치 못한

점은 비판을 받을만하나, 상대적으로 무조건적 통일을 주장한 김구 선생을 이상시하고 이 대통령을 몸쓸 인간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때 이 대통령이 반탁을 주장한 것은 소련의 속셈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소련에 들어간 나라들은 공산화되지 않은 나라가 없었고, 일단 소련 지배에 들어가면 다시 자유를 잃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친일파문제도 당시 상황에서 공산주위를 막는 게 중요한데, 친일파를 빼고 나면 공산주의자만 남는 상황이라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

또 다른 이 대통령의 치적은 교육이다. 구한말 나라가 망한 이유가 국민이 무지몽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때문에, 의무교육을 실시한 결과 1945년 해방당시 우리나라 문맹률이 70%가 넘었고, 중등교육이상 이수자가 2만 6000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인재가 있을 리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짓고 교사 수만 명을 양성했다. 전쟁 중에는 나 역시 임시 수도 부산에서 천막 친 교실에서 공부했다. 그 결과 이대통령 임기 말인 1960년에는 국민의 95%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어 나라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이 대통령의 치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비하면 약점이 많다. 우선 쿠데타로 집권, 삼선개헌과 유신개헌을 했지만 세계최고의 국가지도자라고 본다. 당시 한국은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자본이 없어 빈곤의 악순환만이 반복되

고 있었다. 재일동포 수만 명이 잘사는 북한에 가는 것을 바라만 보았어야 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유일한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을 보면 당시 한국의 문제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대통령 때에는 경무대 비서실이 의전담당정도의 기구였으나, 효율적인 국정운영시스템으로 만들어, 처음으로 기능참모제도가 되었다. 이는 곧 청화대가 사령탑이 되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쇄신이 뜻대로 되지 못한 것이 그의 큰 실책 이었다. 따라서 유신선언 이후 한 번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는 10.26을 맞이했다. 전두환 대통령을 평가할 때 우리는 광주 항쟁을 떠올린다. 광주 항쟁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군대가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과 충돌해 사상자를 낸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임에 틀림없다. 당시 나는 네팔에서 쿠리카니담을 건설할 때였기에 영국의 B.B.C.로 이 사건을 알 수 있었다. 보도 통제하의 한국보다 더욱 상세히 알 수 있었다.

당시 한국은 박정희라는 18년의 카리스마정권이 권총 6발에 한순간 어이없이 무너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전 대통령은 그 위기를 잘 극복했고, 박 대통령이 미완으로 남긴 한강의 기적 (물론 경제에 기적은 없지만)을 완성했다. 1977년 수출액이 100억 달러였던 게 지금은 4,000억 달러에 달해 오늘의 선진국도 약의 기틀을 다진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

그런 조치가 평상시에는 헌법에 위배될지

물라도 위기 때에는 나라를 보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국민들도 받아들여졌다.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은 저돌적 해결사로 통한다. 재임기간 7년 중 물가 안정 목표를 집요하게 밀어 붙였다. 많은 사람이 무모한 목표라고 했지만 그는 군사작전처럼 장애물 돌파, 마침내 고물가를 해결했다. 전 대통령은 10.26사건 이후 12.12와 5.17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 경제는 최악이었다. 6.25전쟁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오일 쇼크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이 어렵고 해외에서 차관을 빌리기 힘들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박 대통령 때 이미 타결된 대일 청구권 차관 카드를 다시 사용해 50억 달러 요청해 그중 28억 달러를 사용해 임하댐 건설을 추진했다. 더욱이 쌀 흉년까지 겹쳐 수재 시에는 북한이 제공한 식량 원조도 받았다. 북한이 준다는 쌀 5만 섬은 그 당시 우리나라 반일 소비량에 불과 했으나 이를 거절하지 않았다. 북한으로서도 의외였는데, 단지 생색만 내려던 것이 현실로 되어 단시일 내에 이를 준비하고, 운반하는데 무척 당혹스러웠다는 것이 후문이다.

박정희 정권 말기에 경제팀이 성장일변도정책에서 안정화, 자율화 정책으로 선회를 추구했으나 성과는 지지부진했던 터였다. 전두환은 형편없는 부실경제를 안고 출발했다. 특히 물가 안정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정치권 논리가 경제에 스며들지 못하게 했다. 추곡수매가

와 임금을 올려 농민과 노동자, 그리고 정치권의 불만을 샀으나 전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가격이나 임금을 올려 봐야 손해라고 맞받아 쳤다. 1983년 물가 안정을 위해 극약처방으로 예산을 동결할 때다. 전두환은 예산 배정에 불만을 품은 두 현직 장성이 문희갑 예산실장 방에서 소동을 부렸다는 보고를 받고는 그들을 한직으로 좌천시켰다. 그 후 문희갑 실장은 초대 대구광역시 민선 시장이 되었는데, 96년 필자가 대구 지하철 1호선 감리단장시 대구역 지하터널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그 당시 3,000원의 파로국밥식사 대접을 받은 적도 있어 개인적인 감회도 남다른 분이다.

전 대통령은 경제에 무지했다. 그러나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 간파해, 그들을 중용했다. 대표적인 인물이故김재익 경제수석이다. 김재익은 경제기획원 기획실장으로 있다. 흔히 잘난 못이 정을 맞는다는 옛 속담처럼 한국개발연구원(KDI)로 좌천되려하는 찰나였다. 전 대통령은 우연히 그를 경제 가정교사로 쓰다 그의 개혁적 경제 구상을 높이 평가해 경제수석으로 전격 발탁했다. 전 전 대통령은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유명한 말대로 김재익의 구상에 힘을 실어 줬다. 경제 전문가의 안목을 존중해 수입자유화 등 개방, 은행민영화 등 민간 자율을 추구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81년 13.8%, 82년 2.4%로 떨어졌다. 85년 9월 G5 정상회담을 계기로 저금리·저유가·저환율의 3저시대가 열리자 비로소 설비투자를 늘리는 등 역량을

올인했다. 경제는 86년부터 88년 사이에 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경상수지는 3년간 286억 달러에 달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구가한 셈이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도 성장시키고 최초로 정권을 이양하는 민주화도 했으니 임기 7년치고는 가장 국가 경영을 잘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을 평가 할 때 흔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 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정책은 당시 세계 조류의 영향도 있었지만 과감하게 잘한 것으로 평가한다. 외교지평을 넓혔고, 특히 중국과의 물꼬를 터 지금의 우리 경제의 기틀을 다졌다. 북방정책이 있었기에 세계화정책과 햇볕정책이 가능했다. 체육관 선거를 국민이 선택하는 선거로 바꾼 민주주의 대통령 그리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 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후한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금융실명제를 들고 싶다. 특히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신한국을 창조하고 세계화한다고 했는데 그 거창한 목표를 5년에 실현하겠다는 자체가 허황된 꿈일 수밖에 없었다.

흔히 김영삼 대통령 잘못으로 외환위기가 왔다고들 하는데 이는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연유된 것이 김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다 짊어져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남북정상회담도 날짜까지 잡은 상태에서 개최 19일전에 김 일성 죽었으니 너무도 운이 따라 주지 않았다. 경제정책에서도 노태우 정권 말에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낮추고, 안정정책을 했

어야 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돈을 막 풀어서 IMF가 닥친 것이다. 지금의 이명박 대통령이 참고하여 국정을 꾸려 나가야 할 대목이다.

난세는 영웅을 만들기 때문에 국민은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하게 만들었고 이런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IMF와 같은 경제위기를 3년 8개월 만에 극복했다. 97년 12월 3일에 맞이한 IMF를 2001. 8. 4일로 극복, IMF자금 195억 달러를 모두 갚은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너무 빨리 샴페인 터트린 게 문제였다. 노벨상까지 받은 햇볕정책은 잘한 일이지만, 문제는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생긴 면도 부정할 수 없다. 역사에 박정희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기를 바랐기에 과욕이 화를 자초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고 한 것처럼 그런 걸 의식치 않고 문제를 풀려는 마음으로 일했어야 했는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통령 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인적 리더십이 강한데다 이데올로기 요소까지 더해져 있었다. 어떤 기자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떤 인재를 등용할 거냐고 물으니 '인생 역정이 나랑 같은 사람을 쓰겠다.' 즉 Code가 맞는 사람을 등용하겠다고 했다. 국정운영이 인생역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한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명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에게 삶의 지혜를 준다. 역사는 오늘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과

거 속에서 찾게 해주고, 미래를 전망할 수 있게 해준다. 역사로서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 사태는 주로 그 나라의 경제성장, 국제수지, 물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환율이 시장과 거꾸로 갔기 때문이다. 지금은 지난 8월과 같은 환율 급등사태가 왔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국제수지가 오히려 비슷하거나 좋아 지는 데도 환율이 약간 절상되었으나, 우리는 국제수지가 거꾸로 악화되는데 지난 4~5년간 거꾸로 간 것이 환율·폭등을 부추겼다.

해외여행수지도 적자이고 국제수지도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남의 물건을 싸게 사면서도 수지를 맞추려면 우리 물건은 거꾸로 비싸게 팔아야 했지만, 우리 능력 이상으로 과소비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으로 올 초에 와서 국제수지가 바닥을 친 것이 환율상승을 불러 온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였다. 국제수지 적자가 계속 유지되는데도 환율은 오히려 절상돼서 외환위기가 왔다. 이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사가 해야 할 일은 기술개발이다. 유럽의 경우 일찍부터 기초과학 발전이 기술·산업 발전,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체험했다. 기초과학이 인간의 가치관과 철학을 바꾸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는 이 과정 없이 눈부신 압축 성장을 이룩하면서 과학을 경제성장의 도구라 생각하게 됐다. 기초과학에 예산을 투자하느니 필요

한 기술과 부품소재를 수입하면 더 싸게 먹힌다는 경제논리가 아직도 지배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는다. 첨단 부품 소재와 원천기술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다간 우리에게 남는 게 없다.

세계 일류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시대다. 선진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일부 쓸 만한 특허마저 싼값에 사들이고 있어 우리는 선진국의 기술속국이 될 판이다. 원천기술의 개발이 우리의 살길이고 그를 위해서 기초과학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혁신이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경제논리에 의해서도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제3의 물결시대는 지식이 주도하는 경제사회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시장 구조와 삶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이 같은 기초과학 분야를 개척하여 고부가 가치상품을 만들 수 있을 때, 비로소 경제난국을 극복하리라 보고 이 분야 기술사의 가일층의 분발을 촉구한다.

세계화의 게임에서 지면 국민은 가난해 질 수 밖에 없다. 세상은 언제나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역사는 바로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해 씌어졌다. 현재의 세상을 이룬 이들은 바로 불굴의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도전정신으로 역경을 극복하자!

〈원고 접수일 : 2008년 12월 9일〉